정명호 전남대병원 교수 심근경색연구회장 연임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최근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회장에 연임됐다.

지난 2018년 1월 회장에 취임했던 정명호 회장은 최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임원회의에서 차기회장으로 재선출 됐다. 임기는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심근경색연구회는 심근경색증의 연구·치료·예방을 위해 심근경색증에 대한 등록·자료수집 및 치료지침 발간 그리고 학술대회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명호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심근경색증 교과서 편찬과 한국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등 연구회의 핵심적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연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명호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총 7만 4035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SCI급 논문 240편을 포함한 총 261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농업인행복콜센터 전화기 250대 기증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가 13일 광주 농촌지역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행복콜센터' 전화기 250대를 기증했다. 〈사진〉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지역 농협 조합장 14명과 올해 1차 조합운영협의회를 열고 농촌지역 경로당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행복콜센터 250대를 전달하기로 했다.

농업인행복콜센터 전화기는 농촌지역 홀몸 어르신과 취약 농업인이 전화 한 통화로 전문상담사와 상담이나 자원봉사자의 방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112와 119에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축버튼이 탑재됐다.

70세 이상 농업인(조합원) 중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고령농업인·홀몸어르신·취약농업인이라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대, 美 라스베이거스 'CES 2020'서 제품 홍보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 창업지원단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해 지역 우수기업인 ㈜딥메디, ㈜지니소프와 함께 제품홍보 활동을 벌였다. 〈광주대 제공〉

인사

◆구례군

◇4급 전보 ▲의회사무과장 이응호

◇5급 승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강쌍환 ▲문척면장 박노원 ▲보건사업과장 조은혜 ▲농촌지원과장 차상열

◇5급 전보 ▲총무과장 김태곤 ▲주민복지과장 박인선 ▲종합민원과장 정현택 ▲마산면장 김형옥 ▲산림소득과장 김장수 ▲용방면장 김성근 ▲산동면장 양보승 ▲토지면장 황은주 ▲환경교통과장 류덕열 ▲간전면장 김용헌

◇5급 승진교육 대상자 ▲총무과 김경모 ▲친환경농정과 이용탁 ▲산림소득과 황철배 ▲농업기술센터 박근규 ▲농업기술센터 오치경

◆주택금융공사

◇지사장 전보 ▲광주 임대근 ▲전북 손진국

"삶을 돌아보니 한편의 詩가 되더군요"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박후식 시인 6번째 시집 '당신의 숲' 발간

광주·전남서 교직활동…1978년 '교실에서'로 등단
3~4년 걸쳐 쓴 작품 모아 펴내…벗과의 우정 형상화

"시를 쓴다는 것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내가 꿈꾸는 세계일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이며, 추구하는 동경 그 자체이기도 하지요."

올해로 광주일보 신춘문예(1978) 등단 42년을 맞은 노(老) 시인이 6번째 시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박후식 시인(86).

지난 1978년 '교실에서'가 당선돼 문단에 나온 박 시인은 서정적 어조와 격조 있는 언어로 울림이 있는 작품집을 펴냈다. 문학적 성취에 비해 문단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문단 정치'와 거리를 두고 창작에만 천착했기 때문이다.

완도에서 태어난 박 시인은 목포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대학은 공주사범대를 졸업했으며 이후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 교직에 입문해 광주와 전남, 특히 목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펴낸 '당신의 숲'은 3~4년에 걸쳐 쓴 작품들을 모은 시집이다. 박 시인은 "나이가 들다보니 옛 고향 생각도 나고 문득문득 삶을 반추하게 된다"며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인 통일에 대한 기대와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인은 "가볼 수 없는, 경계 너머를 상상하는 것은 그만큼 평화통일이 시대적 당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창작집 표제시 '당신의 숲길'은 벗과의 인연과 우정 그리고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던지는 잠언과도 같은 시다. 군대 훈련소에서 만난 친구와의 우정을 담담한 어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훈련병 시절 만나 우정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흘러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는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신학대학원을 나와 경기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언젠가 메모에서 보았던 친구의 '오늘도 나는 당신의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마치 영혼의 울림처럼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박 시인은 친구의 '당신의 숲'이라는 말은 "나 자신의 숲이기도 하고 사유의 숲 일 수 있다"며 "옛 친구의 정, 생각의 세계를 포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해설을 쓴 정성수 시인(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은 이번 시집에 대해 "지나온 생애의 뜨거움과 서늘함, 그에 대한 시적 부활 혹은 재생의 의미부여에 관한 특별한 감성과 자아성찰의 기록"이라며 "말하자면 생의 파노라마 위에 오버랩된 추상적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했다.

박 시인은 86세라는 연세에도 틈틈이 시를 쓰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매일매일 동네 산책길을 도는 것도 중요한 일과다. 동년배의 친구들이 거의 떠나버려 외로울 때도 있지만 글을 쓰는 것으로 적적함을 달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창작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는 시인이 인터뷰 말미에 남긴 말이 잔잔한 울림을 준다.

"누구나 작업을 마치면 작은 선박처럼 자기만의 항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이 처음의 길일지라도 낯선 길일 수는 없어요." /박성천 기자 skypark@

'대구의 5·18' 2·28 민주운동 아시나요

전남대 프로젝트팀 '뿌-듯' 영호남 역사 교류 프로젝트 진행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대구 2·28민주운동 60주년을 맞아 광주와 대구의 역사 교류에 앞장서는 학생들이 있다.

최근 역사 프로젝트 '2·28 민주운동 제대로 알리기'를 진행한 전남대학교 총장명예학생(PHS) 학생 프로젝트 팀 '뿌-듯'이 그 주인공이다.

전남대 총장명예학생은 학부 제한없이 다재다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발된 학생들이다. 팀 '뿌-듯'은 이들 중 역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박준용(24·정치외교학과 2년)씨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28일 이승만정권이 대구 신천에서 열릴 예정이던 야당 선거유세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임에도 등교시킨 데 반발, 지역 고교생들이 시위를 벌인 민주운동으로, 4·19의 도화선이 됐다.

팀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2·28 민주운동을 보는 눈을 틔우고 광주-대구 간 역사교류를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5·18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려 했는데, 지난해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대구 2·28민주운동과 연계하면 역사적으로도 의미있고,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은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대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를 찾았다. 김현주·박보영 경북대 사학과 박사 등 전문가와 함께 2·28민주운동 기념 문화회관, 사적지 등을 탐방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광주 시민에게 생소한 2·28민주운동이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 활동도 펼쳤다. 10일 전남대학교 후문, 11일 5·18민주광장에서 2·28민주운동을 알리는 홍보 팸플릿을 전달하고, 간단한 퀴즈와 선물을 제공하며 역사적 메시지를 설명했다.

팀은 지난 9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특강도 열었다. 2·28로 시작된 민주운동의 흐름이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현대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고민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2·28민주운동은 고등학생을 주축으로 펼쳐진 운동인 만큼, 고등학생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면 더 많은 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는 한 학기 내에 성과를 내야하는 단기 프로젝트로, 이번 달까지만 진행된다. 박씨 등은 새 학기에 프로젝트를 연장해 장기적으로 광주-대구 학생 간 역사 교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생각이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를 통해 대구 지역 학생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렇듯 작은 교류를 발판 삼아 광주-대구 연합 동아리까지 만드는 것이 다음 목표에요. 장기적으로 지역갈등을 넘어서 상생하는 조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손완이 호남대 국제교류본부장 '국제화 유공' 표창

호남대학교 손완이 국제교류본부장이 최근 대학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2년부터 호남대에 재직 중인 손완이 국제교류본부장은 중국어학과 교수와 중국 항주 세종학당장을 겸임하면서 어려운 국제교류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1500여 명을 유치해 대학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교육부가 불법 체류율 1%미만 대학에 부여하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 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윤병길 전남대 교수, 광주성악가협회 초대 회장 선출

윤병길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교수가 광주성악가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260여명의 성악가들로 구성된 광주성악가협회는 지난 10일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윤병길 교수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공동회장에는 김선희·유형민, 부회장에 이경은·송태왕·임선아, 감사에 최철·방대진이 선임됐다.

광주성악가협회는 앞으로 연주활동과 회원 권익옹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협회 설립을 추진해온 윤병길 회장은 "지역 성악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회

▲2020 여수고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취임 김창주, 이임 박정일)=17일(금) 오후6시30분 여수베네치아호텔 3층 대연회실 061-643-8888.

종친회

▲동래정씨광주전남화수회(회장 정진원) 이사회의 및 신년하례 단배식=16일(목) 오전 11시 동구 충장동 뚱이레식당 010-3609-2523.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21일(화) 오후7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알림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